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하늘, 고풍스런 낙엽, 도처에 널린 아름다운 가을 풍광 속에 사노라면 시문과 구르몽이 떠오른다. 아마도 오래 전 익힌 구르몽의 시 '낙엽'의 연쇄작용 효과일 것이다.

"시문, 너는 좋으니 낙엽 밟는 소리가" 라는 이 시는 기막힌 운치로 낙엽과 삶을 하나로 돌린다. 땅 위를 구르는 낙엽, 그건 바람을 타고 왔다가 가는 인생을 성찰하게 만든다. 그래서 가을이면 구르몽의 인생 낙엽론을 음미하며 가을편지라도 쓰고픈 욕망이 잠긴다. 그런데 낙엽보다 먼저 떨어져 땅위를 구르는 청소년 자살 소식 이 가을편지로 가슴에 꽂힌다.

금메달 행진과 경제력으로 상위권에 속한 걸 과시하고 '강남스타일' 말춤으로 세계를 즐겁게 하는 한국, 그런 한국이 자살률에서 고공행진을 벌이는 점은 모순의 극치이건만,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니다. 이 좋은 가을날, 가을편지로 날아든 청소년층 자살률 급증 소식이 보고 또 봐도 아프고 충격적이다.

지난 10년 간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데, 두 배로 급증했다. (2000년, 13.6%→2010년, 28.2%), 이들을 지도하는 초중고 교사의 자살률도 지난 2년간 두 배로 늘었다. (교육과학 기술부 자료, 2010년 17명→2011년31명). 배우고 가르치는 이들이 맞물려 자발적으로 떨어져 구르는

들리는가, 어린 낙엽이 지는 소리가

사회가 지독하게 병든 것을 가슴 저리게 실감한다.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바로 직전인 23일 청소년공동체 '희망'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추모의식을 거행했다.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라"는 호소를 하면서, 청소년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쟁위주 입시제도,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만난 청소년의 유사한 상황이 떠오른다.

좀처럼 인도영화를 수입하지 않는 한국에서 청소년층의 폭발적 인기에 놀라 뒤

늦게 개봉한 '세 얼간이'를 되새겨 보자. 40만명 지원자 중 200명을 뽑아 최고로 돈 잘 버는 공학 인재를 길러내는 명문 공대가 무대이다.

학장은 신입생을 앞에서 '빠꾸기-인생 경쟁론'을 주입시킨다. "너희들이 합격하면서 떨어트린 지원자들은 빠꾸기 중지에 서 떨어져 깨진 알들이며, 모든 이를 담고 승자만 우뚝 솟는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라"는 것이 교육철학이다.

이런 경쟁판에서 조이와의 만남은 란초에게 경쟁하지 말고 자기식으로 살기 정신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다. 기계에 미쳐 이곳에 온 조이는 헬리콥터를 만들지 못해 출간을 못 맞춰 절망한다. 학점과 상관없이 강의를 듣다가 선배 조이를 알게 된 란초는 그가 기숙사 한구석에서 잘망에 젖어 노래하는 모습을 엿본다.

"내가 살아온 인생 / 다른 이들의 삶 / 단 한 순간만이라도 / 삶이란 걸 살게 해주오 / 내게 햇빛을 내려줘, 비를 내려줘."

그의 절규를 들은 란초는 친구들과 밤새워 조이의 헬리콥터를 완성해 다음날 그의 방에 날려준다. 헬리콥터를 따라 카메라가 올라가 잡은 그의 창문, 그 안에서 목 매어

지살한 조이의 모습이 잡힌다. 조이의 장례식에서 란초는 학장에게 따진다. 그건 자살이 아니라 당신이 죽인 것이라고.

유사한 상황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나온다. 명문사립고 웰튼 아카데미, 연극을 하고픈 페리는 아버지 몰래 오디션을 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페리를 강제로 엘리트 군사학교로 전학시킨다. 자신이 생각하는 출세로 가는 길에 아들을 집어넣은 것이다. 페리는 죽음을 선택하고, 이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로맨스 인생론을 가르친 키팅 선생은 파면당한다.

물론 이런 허구 영화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직면하는 청소년 죽이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청소년은 판도라 경쟁상자에 갇혀있다. 경쟁을 덮고 자신의 기질대로 살아갈 재미를 배우는 교육을 누가 세워나갈 것인가?

어른들 역시 인센티브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에, 앞으로 더 그런 세상이 될 것인 짐작이, 다음 세대에겐 경쟁을 줄여주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상상에서 사로잡힌 것일까? 대선을 앞둔 가을, 온갖 희망이 공약으로 나부낀다. 그 가운데 청소년을 경쟁상자에서 꺼내주는 정책과 전략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 통·폐합 마땅하다

광주·전남지역 축제가 정확한 경제성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치러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대다수 축제가 비슷한 소재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관람객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 지역 축제는 광주 19개, 전남 39개 등 모두 58개에 이른다. 지난 2008년 광주 16개, 전남 131개에 비해 크게 줄긴 했지만 구·읍·면·동에서 열리는 축제까지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관리는 극히 허술하다고 한다.

문광부는 일선 지자체의 축제를 평가해 대표·최우수·우수·유망으로 나눠 45개의 축제를 선정, 4200만~8억 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구·읍·면·동에서 200만~1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축제를 계속하고 있어 낭비를 막을 수 없는 데다 단체장이 바뀌면 지역 대표 축제가 바뀌는 악순환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화순군은 군수가 바뀔 때마다 대표축제를 화순 운주축제→고인돌축제→풍류문화 콘서트 등으로 바꿨다. 나주시도 영산강문화축제를 없애고 10월 한달 간 상설공연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는 축제 개최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단체장의 처적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립악 명성을 얻은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도 최근 후임 군수가 직지를 이유로 포기를 선언했다. 나비축제는 전임 군수의 처적으로 알려져왔다.

지역축제는 고유문화를 전승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본래 역할은 물론 외지인을 유인하는 관광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지역 활력소로 삼아야 한다. 이를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부 역시 지역축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 파업한다면 준공영제 철회해야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24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하기로 한 방침을 유보했다. 일단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23일 밤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8일까지 5일 동안 추가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당초 7%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5.6%로 낮쳤으며,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한 3.8% 인상을 수용 여부를 놓고 힘겨투기를 해왔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에 상당 부분 합의를 했으나 임금 지급방식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연인원 43만 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극심한 교통대란을 불가피하다. 광주시가 영업용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 수송대책을 세워 놓은 상태라지만 그 건 한계가 있다.

광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실시로 막대한 시민 열세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뜰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서도 버스업체의 적자 해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6년간 무려 1744억 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노조가 시민들의 '밥'을 불모로 파업을 한다면 이 올베반이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기사들의 하소연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준공영제라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노사는 이제 며칠 간의 추가교섭 시 간이 주어진 만큼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광주시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되,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도 시원히 마련해야 한다.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마당에 버스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나 원가절감, 업체 간 통합 등 경영 개선에는 극히 소극적인데도 밝기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말뼌진 독'에 혈세만 퍼부어 수는 없는 일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25)



박행순

네팔에 온 후 여러 사람에게서 니 사이먼 회관(NSI, Nick Simon's Institute)에 대해 들었다. 어떤 이는 사이먼가의 가정사가 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었다. 시간을 내어 그곳을 방문하려면 참에 영국에서 온 강사 부부가 '정신 건강을 위한 워크숍'을 NSI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참석하였다. 네팔에는 각종 지식 재능기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료, 또는 점심값 정도만 내고 좋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다.

'집 사이먼'은 아들 '니'의 네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카트만두에 아들 이름으로

아들의 꿈 이어가는 '닉 사이먼 회관'

NSI를 세웠다. 사이먼 박사는 미국에서 수학 교수였고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고풍스런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생활에 변화를 갖고 싶어 대학에 휴직을 신청하고 증권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증권가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고 결국 교수직을 사퇴하고 증권계에 투신하였다. 얼마 후에 그는 미국의 40대 재벌에 들게 되었다.

사이먼 박사의 아들인 니는 대학을 졸업했으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였다. 이를 보다 못한 부모는 2002년, 아들의 등을 떠밀어 네팔에 보냈다고 했다. 그는 1년 가까이 네팔에 살면서 네팔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니는 미국에 돌아가서 의대에 가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되어 네팔에 다시 오겠다고 아버지께 연락을 했다.

그가 마음을 둔 곳은 시골과 산간 오지의 의료 사각 지대였다. 마음을 잡은 아들의 말을 들은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는 미국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듬해 여름, 귀국길에 들린 인도네시아의 휴양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네팔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대신하고자 파탄병원에 모자병동을 지어주었다. 산모와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도록 영아 사망률을 크게 줄였다. 그는 또 아들이 원하던 것은 의료혜택이 적은 시골과 산간 마을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는지 별도 건물을 지어 NSI를 개관하였다. NSI는 의사보다는 중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오지에 거의 모든 의사들은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산원, 간호사, 미취 조부사 같은 중간 인력들은 장거적으로 거주하면서 현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날 NSI에서 가져온 소책자에 의하면, NSI는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인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카트만두 병원에서 훈련받는데 드는 비용 지원,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한다.

아들을 잃은 안타까움 속에 그 아들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아버지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아들의 꿈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니가 살아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를 생각해볼수록 얼골도 모르는 그 가족들이 안쓰럽다.

네팔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의 길을 찾고자 도전하기 위하여 네팔을 찾아오는 것을 본다. 때로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부모가 강제로 유배 보내듯 해서 억지로 오는 경우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간의 체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올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네팔을 떠난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왜 다시 오고 싶어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히말라야라는 영산이 분명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 순응하여 자연의 일부처럼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이 더 큰 이유일 것 같다.

〈피터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양성진

나는 시골 경찰서장이다. 265개의 섬과 바다가 아름다운 '건강의 섬' 완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촌이든 산촌이든 어촌이든 우리나라의 시골은 대개 인심이 좋은 탓인지 끔찍한 강력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더 넓혀보자, 전남지역에서는 살인사건으로 46명, 교통사고로 416명이 희생을 당하였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는 살인사건으로 1204명, 교통사고로는 5229명이나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생명이 귀천하고 경중이 따로 없을진대, 고

교통법규, 다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

의범인 형사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과실범인 교통사고로 희생을 당하다 다 같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측면에서는 다를 바 없다. 어느 경우나 그로 인해 가족이 졸지에 불행의 나라에 떨어지고 만다.

나는 7월 초 부임하자마자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100%나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비상한 각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자칫하면 '법 없이도 살만'한 완도지역 주민들에게 치안활동을 잘못하여 소중한 생명이 많이 희생당하도록 방만한 책임을 통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섬 지방에서는 관행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시간 날 때마다 교통경찰은 물론 파출소나 검문소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인 보행자 무단횡단·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온 결과 다행히도 7월 이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읍·면 지역 일선 치안현장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새로 경찰서장이 부임한 후부터 음주단속이 심해져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며 넋두리하시는 말씀도 더러 들었지만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자 하는 일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교통단속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노인정과 마을회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전남도청·완도군청 등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교육(Education : 교육홍보)과 음주·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행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것 위주로 단속(Enforcement : 지도단속)하고, 교통안전 시설(Engineering : 시설공학)을 보

강하는 등 이른바 '3E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알기에 게을리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나만 편하거나 빨라야 한다는 이기적인 운전행태가 습관으로 이어져 교통법규 준수라는 사회적 약속의 틀을 깨고 있다. 이렇다 보니 끔찍한 살인사건 못지않게 교통 사망사고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8.2%가 '우리 사회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인원(34.3%)이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 할 것 없이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교통법규 나 흔하지만 지켜야 한다면 무척 불편한 일이겠지만, 공동체 울타리 속에서 다 함께 지켜나간다면 같이 편리해질 것이다.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이 다 함께 빨라가는 길'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가 올 한가위에는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길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완도경찰서장〉

고속도로 폭주·역주행 견인차 또다른 대형사고 우려

친정에 가기 위해 남편과 아이들 모두 승용차에 타고 IC로 접어들어 고속도로를 막 달리던 중이었다. 그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차들이 상당히 많아서 혼잡했다. 약 20분쯤 달렸을까. 갑자기 고속도로 갓길에서 웬 견인차 한 대가 정말 "쿠아~아아앙" 하는 굉음과 엄청난 폭발력으로 질주하는 게 보였다.

승용차의 차창을 타고 가는 상태에서 견인차가 달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으

니 어느 정도 굉음과 속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견인차라 해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주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아찔하기까지 했다. TV에서 보면 견인차 기사들이 인터뷰하면서 둔 버려져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하는 걸 자주 듣기는 하지만 이런 폭주는 너무나도 위험천만이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우리 차가 사고가 난 차의 위치를 지나자 이번에는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견인차가 굉음을 내며 후진을 하는 게 보였다.

즉 이 견인차는 자기 뒤편에서 차량 사고가 났으니 고속도로를 역주행할 수는 없고, 궁여지책으로 후진해서 사고차 위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앞에서 보기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폭주를 하든, 후진으로 가든 다른 차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거칠게 클랙슨을 울리며 질주하다 보면 대형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견인차가 사고를

냈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은 자주 벌어진다. 견인갑차들이 이렇게 다른 운전자들에게 공포감마저 주면서 역주행까지 감행하는 이유는 일감을 따내기 위한 생존경쟁 때문일 것이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 먼저 가는 레커차가 우선권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고를 위해서라 해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사이로 역주행과 후진, 굉음을 내며 폭주하는 불법운전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경찰의 단속도 절미하다고 해도

▲필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無等鼓

1993년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도망자'는 크게 히트했다. 1960년대 TV 드라마 '도망자'를 현대식으로 바꾸고 첨단 하이테크 액션을 가미했다. 특히 이 영화는 잘못 내리진 사법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분과, 치밀한 구심이 어우러져 전 세계 영화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화의 주인공 리차드 캄블(해리슨 포드 분)은 시카고의 저명한 의사.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시카고 근교의 고급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내 헬렌이 괴한에게 살해된다. 사건 당일 밤, 그는 파티에서 돌아온 직후 괴한과 사투를 벌이다가 아내를 죽고 범인인 도망친다. 경찰은 생 성폭행범이 비상근무 리차드를 범인으로 오인해 기소하고 마

했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2주 가까이 집에서 지내다 지수했다. 대구의 '도망자'나 광주의 자수 성폭행범은 구멍 뚫린 치안망의 현수줄을 보여준다. 경찰청 열 명이 도둑 한 명 잡기 어렵다는 속담도 있지만 그 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작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막힌 '도망자'가 나타나 경찰이 큰 곤욕을 치렀다. 강도상해 혐의로 대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던 최갑복이 옛새나 검문문을 빠져 도망 다니는 바람에 경찰 전체에 비상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왜소한 체격의 최는 가로 45cm, 세로 15cm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나는 바람에 사건은 해외 토크프로그램에 떠올랐다.

어렵사리 최를 검거한 경찰은 또 그가 유치장에서 빠져나올 당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2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문·영문·한글))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어촌매주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 부 2200-612	체육 팀 2200-697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 부 2200-616	조사 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227-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